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3년 7월 1일 (토) 제 828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나카에 요이치·편집인 /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청년 주일
메시지

다음 세대 청년 양성은 희망의 복음



양 양 일 장로 (신도위원장)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교회에 모이는 모든 분들께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 청소년 양성 등의 사역을 함께 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근간 되는 큰 선교적 과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 전망을 열기 위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산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 신앙계승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교회 이탈은 20년전까지만 해도 청년회 은퇴 후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전부터는 교회학교 졸업 후에 이 현상들이 나타났고, 현재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위기적인 상황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30대, 40대의 젊은 성인(청년)의 비율이 적고, 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건전한 교회 운영을 진행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 양성은 극복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지하게 한·일 간의 신앙관의 차이를 넘어 서기 위해 노력해 왔나요? 이중 문화·언어의 공존, 그리고 후계자 양성에 얼마 만큼 힘써왔나요? 청소년 양성의 과제를 미루기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무책임함과 연약함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교회의 부활', '기사 희생'을 위한 행동이 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의 분단과 고립은 더욱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더욱 깨어고 민해야 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희망을 창출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욱 큰 신앙적 의미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2021년에 신도위원장이 되었을 때 청년회 전국협의회(전협)의 활동은 정체되어 있었고, 다섯 지방회의 청년회 연합회도 기능하지 못했으며, 전국적으로 청년회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며 시작한 것은 각 교회에서 버티고 있는 청년들과 만나 대화하면서 신뢰 관계를 맺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작년에 전협 임원 체제가 5명이나마 갖춰지고, 활성화를 향한 첫 걸음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전국 교회 방문입니다. 3월에는 관서지방, 4월에는 관동지방, 5월에는 서남지방, 6월에는 중부지방을 돌았으며, 앞으로 7월에는 서부지방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다섯 지방·개교회 방문의 목적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과 만나는 것(발굴)이고, 8월의 전국 수양회와 11월 3일 예정된 '전협 창립 60주년 기념대회'의 참여를 독

려하고 연합하는 일을 목표 삼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협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청년들과의 만남과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전협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이 생기고 지방회 청년회 재결성의 기운이 높아지는 등, 차근차근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언급하고 싶은 것은, 지난 3월에 있었던 히라노교회 베트남인 청년회와의 합동 찬미 예배와 6월에 나고야미나미교회에서 열린 브라질 신앙공동체와의 교류입니다. 이주민으로서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성실하게 마주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고, 신앙이 삶의 힘이 되고 있는 모습이 크게 감동하며,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얻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만남과 교류는 '다민족 공존'과 '다양성 존중'을 실현하는 21세기의 안디옥교회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의 발견하게 해주었고, 청년들의 행동이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믿음의 빛'을 찾아 함께 연합하려 하는 청년들의 필사적인 활동을 뒤에서 돕는 사람으로서, 그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 속에 우리 어른들이 배울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꾸준한 청년들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린 청년(천사)의 모습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가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의 죽음 후 삼 일이 지나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니, 그곳에는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릴리가 단순히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이 있는 삶의 현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다가간다면 우리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전협의 청년들은 인생과 신앙에서 방황하는 믿음의 벗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사적으로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 삶의 기쁨으로서의 복음 체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있는 청년처럼 희망을 가리키는 역할이 전협의 청년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국 교회 여러분께 청년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발전하게 하는 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韓日対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 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講壇掛・ストール販売



在日大韓基督教会ではKCCJのロゴ入り講壇掛・ストールを制作・販売しています。
価格は講壇掛・ストール共4色セットで各1万円(約半額)
講壇掛・ストール両方ご購入の場合は1万5千円です。※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제55회 일본기독교단과의 선교협력위원회 개최

지난 6월19일(월) 일본기독교단(이하UCCJ)과 재일대한기독교회(이하KCCJ)의 선교협력위원회가 동경 일본그리스도교회 관 UCCJ회의실에서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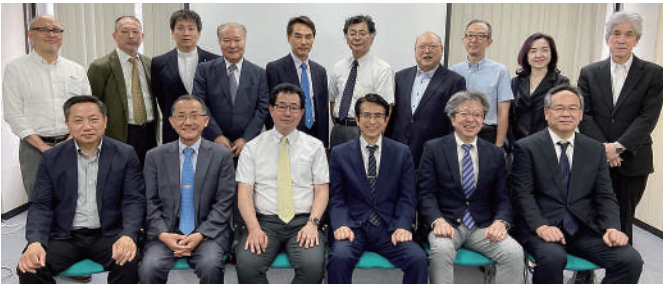
〈양 교단의 선교과제에 대하여 -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100年을 맞이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진 금번 위원회에 UCCJ에서는 총회의장 雲然 俊美(쿠모시카리 도시미)목사를 비롯하여 10명이, KCCJ에서는 총회장 中江洋一목사와 8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주제에 따라서 大久保正義목사(西片町교회)가 100년 전 관동대지진이 있었을 때 6천명이 넘는 재일 조선인이 유언비어, 즉 〈조선인이 방화를 했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말도 안되는 정보를 흘려서 관헌과 자경단에 의해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된 것을 자료에 따라 강연하였다. 이 강연에 대한 응답을 김신야목사(교육위원장, 横須賀교회)가 하였다.

각 교단의 보고와 선교적 과제를 나누면서 특히 1984년2월에 체결한 KCCJ 와 UCCJ와의 〈협약〉이 2024년에 4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준비하기로 협의하였다.

2023년도 <평화메시지>의 초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각 교단의 8월 기관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음날(20일) KCCJ참가자 일동은 학살의 현장, 구 四ツ



木橋 荒川 하천부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발굴하고 자료, 증언 등을 보존하고 추도하고 있는 <봉선화>의 西崎雅夫씨의 안내를 받아 현장을 방문하고 증언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센다이교회

마영렬목사 위임식 거행 집사 안수식과 권사 취임식도 동시에



2023년6월3일(토), 관동지방회 센다이교회에서는 마영렬목사 위임식, 박광진집사 안수식 및 김정숙권사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예배는 임시당회장 장경태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설교는 선교후원 교회인 원주중부교회의 이정열목사가 <복음의 일꾼>(막 16:15)의 제목으로 하였다.

목사 위임식은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어 소개와 서약, 기도 후에 마영렬목사가 센다이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박광진집사 안수식 및 김정숙 권사 취임식은 당회장 마영렬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되었다.

금번 관동지방회로부터 센다이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마영렬목사는, 1964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경북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대구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가족은, 한진명 부인과 2남이 있다.

横浜교회

안병진장로 장립식 거행 이순혜 권사 취임식도 겸하여



2023년4월25일(주일) 관동지방회 요코하마교회에서는 안병진장로 장립식 및 이순혜 권사 취임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당회장 이명충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구자우목사(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창세기1:1-5)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거행된 안병진장로 장립식은 소개, 서약, 안수기도, 선포의 순서로 진행하였고, 이어서 요코하마교회 당회장 이명충목사의 사식으로 이순혜권사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번에 요코하마교회 장로로 세움을 받은 안병진장로는 1978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2015년부터 요코하마교회 집사 및 성가대 지휘로 섬겨왔다.

이순혜권사는 재일 2세로서 제39회 총회기(1987-1989) 부총회장을 역임한 故·이영흠장로의 4녀이며,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이시바시 마리에전도사의 모친이기도 하다.

동경제일교회

강영진목사 위임식 거행 현당식과 박영호명예장로 추대식도



2023년6월18일(주일), 동경제일교회에서는 강영진목사 위임식과 교회당 현당식 및 박영호명예장로 추대식을 거행하였다.

예배는 임시당회장 정유성목사의 사회로, 김병철목사(성산그리스도교회)가 <말씀이 점점 왕성한 교회> (행6:7)의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진행된 목사 위임식은 소개와 서약, 기도 후에 강영진목사가 동경제일교회의 담임목사가 된 것을 선포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현당식은 당회장 강영진목사의 사식으로 보고, 봉헌, 기도, 선언의 순서로 거행되었다. 이번에 현당한 교회당은 1995년에 매입한 후에 약25년간 차용금 변제가 완료되면서 감격적인 현당식을 하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이 교회를 지키며 집사, 장로서서 섬겨 왔던 박영호 명예장로 추대식도 동경제일교회로서는 감동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추대식이었다.

금번 관동지방회로부터 동경제일교회의 목회를 위임받은 강영진목사는 1962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강영진목사는 과거 1999년에서 2006년까지 동경제일교회의 청빙을 받아 담임목사로 목회를 하였으며 이번에 2번째 담임목사가 된 것이다. 가족은, 김유진 부인과 1남1녀가 있다.

福岡교회 담임목사 청빙 안내

연령이 55세 이하, 단독목회 경력이 5년 이상 목사 일본어와 한국어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목사

연락처 : 김인과목사(kiminkwa709@gmail.com)

희망하시는 목사님은 이력서와 설교 파일을 7월30일 까지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정기총회에 참석 나카에 요이치 총회장이 축사를 전하다

2023년 6월 4일-7일 개최된 캐나다장로교회(PCC) 제149회 정기총회에 中江洋-총회장, 김병호총간사, David McIntosh선교사가 참석하였다.

토론토에서 1,800Km 북동쪽으로 떨어진 먼 거리의 Nova Scotia洲 Halifax에서 개최되어, 항공편의 환승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행의 원거리 비행은 힘들었다.

헬리팩스라는 곳은 옛날부터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고, 캐나다에서 파견되는 선교사들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지역이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로운 총회장에는 드물게 캐나다 선주민인 Mary Fontaine목사가 선출되었다. 개회예배전의 선주민의 환영 세레모니, 총회장 취임에 선주민 의식이나 의상에는 매우 감동이었다.

2일째 오전, 나카에총회장의 인사에, “나는 히로시마에서 나리타, 나리타에서 밴쿠버 경유하여 토론토에, 또 토론토에서 헬리팩스까지의 여정은 매우 피곤했습니다만, 100년전 캐나다 선교사들이 헬리팩스 그리고 토론토에서 열차와 배로 태평양을 건너 멀고 먼 일본이나 조선까지 와 주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단지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또 2027년에는 PCC로부터 L.L.Young선교사가 파송된지 100년을 맞이하는 해로, KCCJ로서는 기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전했다.

인사 후, KCCJ의 마크가 새겨져 있는 스톨을 새로운 총회장에 걸어 주었다. KCCJ의 마크는 John McIntosh 선교사가 디자인한 것과 그 뜻을 David McIntosh 선교사가 설명했다.

총회 참석전 2일간, 토론토의 PCC 교단 본부를 방문해, 거기에는 캐나다 합동 교회(UCC)의 선교부의 아시아 담당 Patricia Talbot 총



무도 함께하여 보고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또한 제일 캐나다 선교사 자료관 <비전켈로십(관장: 황환영장로)>을 방문하고, 토론토의 한인교회 몇 곳을 방문하여 내년 KCCJ에서 유학생 2명을 보낼 예정인데 유학기간 중에 협력 교역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면서 협의하였다.

(보고: 총간사 김병호)



목사 면직 공고

제일대한기독교회 중부지방회 치리부는 성서·제일대한기독교회 헌법·규칙·계규·재판규정·권징조례에 따라 교회의 신성(神聖)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중히 심의한 결과 제일대한기독교회 아이린(愛麟)전도소 은퇴 목사 조상호(趙尚浩)를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주 문>

피고인 조상호를 면직에 처한다.
2023년 4월 12일

제일대한기독교회 중부지방회
치리부부장 최화식, 부원 최광일 이진용 이대중

미국장로교회 한인교회전국 대회 김병호총간사가 참석

2023년 5월 23일-26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한 NCKPC 제52회 정기총회에 및 전국대회에 김병호총간사가 참석하여 인사하고 교류에 참여했다.

코로나 사태로 4년 만에 대면으로 모인 모임은 ‘시애틀 형제교회’를 장소로 하여 <RESTART,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라!>(사11:12)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00명의 총대, 준총대 및 게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회, 강연집회, 지역 리서치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무총회에서는 지난 총회에서 선출된 차기 총회장 권준목사(시애틀형제교회)가 총회장으로, 차기 총회장으로는 박상천목사(New Jersey 소망교회)가 선출되었다.

개회예배 순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소천한 목사들을 추도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소천자 명단에 놀랍게도 1980년대에 PCUSA에서 KCCJ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우라와(浦和)전도소를 개척 설립하고 요코스카교회를 목회하였던 강은홍목사의 이름이 있어서 감회가 새로웠다. (22년 6월 소천) 그리고 예배후에 故·강은홍목사의 장남 Jayoung Peter Kang목사가 나에게 인사하였다. 그가 소년

시절에 만난적이 있는데 그는 일본에서 지낸 경험을 살려서 일본계 미국인장로교회를 담임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일본 선교사의 자녀들이 쓰임 받는 귀한 일을 실감하였다.

(보고: 총간사 김병호)



청년교류 강화 위해 각지방 방문 관동, 서남 방문, 다음은 중서부 방문 예정

청년회전국협의회(전협)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과 활동 정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2023년 활동계획의 초점을 ‘전협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11월 3일 개최 예정)에 두고 있다. 청년회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전국 개교회 방문을 진행하며, 4월에는 관동지방회(도쿄, 요코하마, 가와사키), 5월에는 서남지방회(벡푸)를 방문해 약 30명의 청년과 교류했다.

벡부교회에서는 예배 후 2시간 가량 패널 토론이 마련되었다. 청년 10여 명과 전협 임원 3명과 신앙생활, 취업활동, 교제 등에 대해 나눔을 했다. 대학생 청년들이 많아 자신에게 주어진 탈린트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구체적인 취업준비 방법 등에 특히 관심이 많았다.

청년들이 취업을 검토하는 업계·업종에 종사하는 크리스천 선배가 개교회 단위로는 없을 수 있다. 전국 단위로 각 교회 신도들, 전협 OBOG에 협조를 구함으로써 청년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크리스천 선배들과의 면담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6월에는 중부지방회(나고야), 7월에는 서부지방회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 또 8월에는 4년 만에 대면 수련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전협은 임원 5인 체제 운영으로 일꾼 충원을 바라고 있다.

전국 교회 여러분께는 전협을 향한 이해와 협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엄지용 대표)



특별연재 5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5)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5> 학살, 누가 심판을 받았는가?

9월 1일 저녁부터 퍼져나간 <불량(불령) 조선인> 폭동의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살에 대해 정부는 3일부터 서서히 진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방침 전환을 시작한다.

내무성은 9월 5일에 관현에 극비 자료에서 <조선인 문제에 관한 협정>을 통달한다. 거기서는 조선인 폭동은 다소 있었다고 증거의 뒷받침도 없이 사실로 여겨진 뒤 학살을 목격한 조선인의 한반도 도항을 못하게 하고 제국에 불리한 보도의 단속 등이 지시된다.

자경단의 학살 가담자의 검거는 9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10월에 법무성은 이미 입시 지진구호 사무국 경비부 사법위원회가 9월 11일에 정했던 대로 조선인의 범죄를 기성 사실로 하는 것과 자경단원 전원 검거를 포기하는 방침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경단 재판의 전말이란 <12건, 125명의 피고 중 무죄 2명, 집행유예 91명, 실형 32명, 그 중 최고형은 4년(2명)> (법률신문 1923년 12월 5일자)이라는 결과로 끝나고, 또한 실형 피고인의 대부분은 다음 해 1924년 1월 26일, 황태자의 결혼식 때 은사를 받았다. (오사카 아사히 신문 1924년 1월 27일자).

즉, 겉으로의 재판은 했지만, 학살에 대한 사법의 정의는 처음부터 포기되고 있었던 것이며, 학살 행위를 실시한 것은 자경단이며, 내무성과 군, 그리고 관현은 오히려 그 진정시키는 일에 노력하였으며 사법에 의한 심판을 우선 취했다는 스토리가 갖추어져 갔다.

왜 이런 믿기 어려운 시말(始末)이 되었던가?

자경단 재판 피고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들 자경단원은 나라를 위한 일념으로 9월2일 오후8시부터 일제히 검을 들고 경비를 위해 일어난 것이다.” (호우치신문1923년10월23일 석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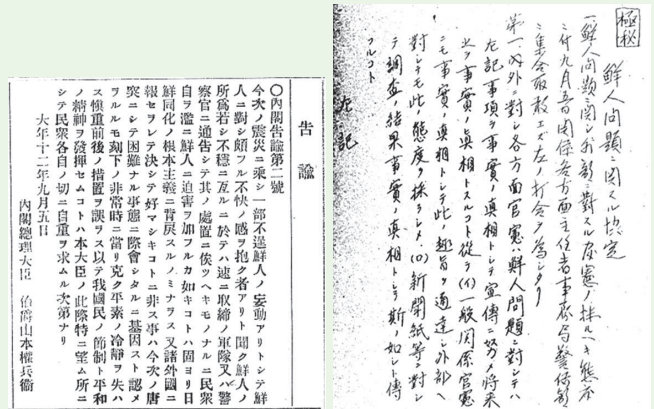
“모두 계엄령하에서 조선인을 잡으면 훈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것은 다른 말이다. 계엄령이 내려졌다가 저질렀지만 말이 다르다.” (숨겨진 역사 -관동대지진과 사이타마의 조선인 학살 사건-관동대지진 50주년 조선인 희생자 조사 추도 사업 실행위원회편 1974년).

가해자들의 “맑은 대낮의 살인”에는 “황국을 지키기 위해”라는 <대의>가 있으며, 확실히 (교육칙어)에는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했다면 의용의 정신으로 자신을 바치고 영원한 황국의 명운을 지지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대의>를 위한 일을 한 백성을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현실.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는 관동자경동맹이 강력한 압력단체로 결성되어 있어 이 압력을 무시하고 사법의 정의를 피고들에게 관철하면 군과 관현이 실시한 유언비어와 학살행위가 오히려 모두 폭로되어 자경동맹에 의해 고발되게 되었을 것이다. 즉 국가책임과 민중책임을 불문으로 물어버리는 국가와 민중의 공의존(共依存) 상태라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일본의 비극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역사와 마주하지 않고 대학살의 역사 사실을 계속 불문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묻힌 아벨과 같은 역사를 앞두고 기독교회는 가인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목소리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역사의 땅 아래에서 지금도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질문에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는 복음 신앙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인 이까?” (창세기4 : 9)



「鮮人ニ対スル迫害ニ関シ告諭ノ件」 1923(大正12)年9月5日 「鮮人問題ニ関スル協定」(警備部) 1923(大正12)年9月5日

KCCJ 2023년 교역자수양회(zoom)

현장의 목소리 ~나의 KCCJ선교란?~

일시 : 2023.7.17 (월·휴) 오후1시~4시 (참가비무료)

이번 교역자 수양회에서는 복음선교의 광야라 불리는 일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목회자 4명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네 분이 모든 것을 대표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접하기 힘든 귀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자신의 목회현장과 비교하면서, 느낀 점과 생각한 점 등을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발제 : 조원철목사, 채은숙목사, 정수환목사, 박용길목사

* 수양회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zoom으로 개최하오니 소속교회를 명기하시고 e-mail로 kimshinya0327@yahoo.co.jp 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접수후에 zoomID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최 : 재일대한기독교회 교육위원회